

##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 박문각 합격수기

### 0. intro

안녕하세요. 이번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32살 박한울이라고 합니다. 인터넷강의로 박문각을 2년 연속 수강하면서 시험 합격이라는 경험을 하게 된 바, 저의 경험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이렇게 합격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① 2019-2020년도 제1차 및 제2차 시험에 대한 간략한 리뷰, ② 저의 개인적인 공부방법, ③ 퇴사한 30대 수험생으로서 겪었던 개인적인 고충, ④ 박문각 온라인 첨삭반 이용후기 및 ⑤ 기타 유념하실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서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른바 생유예로 합격한 경우로, 2019년 제1차 시험을 합격한 뒤 제2차 시험에서 소수점 차이로 탈락의 고배를 마신 뒤, 올해 2020년 제2차 시험에서 평균점수 0.03점 차이라는 아슬아슬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2019년 제 28회 공인노무사 (1차) - 공인노무사					
수험번호	이름	종목(자격)	합격여부	과목	취득득점
01130409	박	공인노무사	합격	노동법I(1차)	84
				노동법II(1차)	88
				민법	52
				사회보험법	60
				경영학개론	76.98
평균		72.19		총점	360.98

2019년 제 28회 공인노무사 (2차) - 공인노무사					
수험번호	이름	종목(자격)	합격여부	과목	취득득점
0122	박	공인노무사	불합격	노동법	277.49
				행정쟁송법	170.75
				경영조직론	174.13
				인사노무관리론	173.13
평균		58.92		문항별 득점보기(서술형) 총점	795.5

2020년 제 29회 공인노무사 (2차) - 공인노무사					
수험번호	이름	종목(자격)	합격여부	과목	취득득점
01220305	박한돌	공인노무사	합격	노동법	260.49
				행정쟁송법	179.96
				경영조직론	189.33
				인사노무관리론	180.69
평균		60.03		문항별 득점보기(서술형) 총점	810.47

## 1. 시험 리뷰

### (1) 2019년도 1차 시험 - 합격

수험생에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작년 여름에 박문각 수기로 작성하였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차 시험과 관련하여 가장 유념하셔야 할 사항은, 이른바 ‘1차 시험 1달 합격론’ 등의 소문입니다. 실제로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의 난이도는 전문직 시험 중에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합격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달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을 너무 굳이곧대로 믿으셔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저 한 달이라는 시간은 법 또는 경영 과목을 학부(또는 대학원 등)에서 전공한 경우에 한하며, 저와 같이 전혀 다른 전공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투입을 필요로 합니다.

저의 경우 신방과 방송영상 전공으로, 법과 경영 두 과목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때문에 1차 과목 중 민법의 경우 강의를 들으면서도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실제 시험 결과 또한 가장 낮은 점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물론 생동차를 노리는 수험생이시라면 1차 시험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차가 2차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특히 노동법 과목과 선택과목(저의 경우, 경영학 개론)은 2차 시험의 기본 개념과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에, 객관식이라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탄탄히 공부를 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2) 2020년도 2차 시험 - 불합격 (평균점수 58.92)

1년차 2차 시험은 행정쟁송법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경영과목 글쓰기 스킬에서의 미

숙함이 맞물려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된 경우입니다.

#### 1) 노동법 - 61.66

그나마 합격권 비스무리한 평균점수를 맞을 수 있었던 까닭은, 前 박문각 노동법 교수님이었던 이장훈 교수님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2년차 노동법보다도 훨씬 높은 점수를 맞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등 운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포섭의 경우에도 틀리지 않게 1페이지 정도 충분히 작성하였습니다.

#### 2) 인사노무관리론 - 57.71

지금 와서 돌아해보면, 제가 인사과목을 너무 ‘썰 푸는 과목’이라고 인식한 것이 낮은 점수의 가장 큰 패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시험 기간의 한계도 있었지만, 정확한 이론을 현출하는 것보다는 직장인 출신의 경험을 살려 사례 위주로 작성하였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 3) 행정쟁송법 - 56.92

통한의 행정쟁송법입니다. 제3문은 아직도 확실히 기억나는데,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험지를 보는 순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위축되었고, 결국 장편소설을 집필하였습니다. 때문에 채점원점수 기준으로 이른바 ‘글씨값’만을 받았고(총 75점 중 9점) 이로 인해 탈락의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 4) 경영조직론 - 58.04

솔직히 시험 보고 나오면서 이 때 경조는 무조건 60점이 넘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과욕임을 알아차렸던 것은, 제가 제3문에서 French&Raven의 권력유형분류를 대입하라고 한 부분을 문제를 잘못 읽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이었습니다.

논점 중 하나를 누락했으니, 좋은 점수가 나올 리가 없었죠. 58점이나 맞은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나머지 문제를 꽤 잘 썼다는 반증이라고까지 생각되어 놀랍습니다.

### (3) 2020년도 2차 시험 - 합격 (평균 60.03)

그렇게 유예생의 신분이 된 저는, 코로나와 겹쳐 다시 한 번 인터넷으로 집에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공부의 양을 늘리기 위해 박문각 외 다른 학원 강의도 추가로 수강하는 등의 방식을 선택했으나, 대부분의 학원이 온라인 첨삭을 지원하지 않는 관계로 첨삭 측면에서는 여전히 박문각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2019년 10월 말 2차 불합격 발표 이후, 2~3주 정도 쉰 뒤 11월 중순부터는 생계

유지를 위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다가 3월 말 정도부터 다시 전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1) 노동법 - 57.89

작년에 비해 무려 4점이나 떨어져 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과목입니다. 솔직히 노동법은 계속 자신있어하던 과목이었기에, 시험 성적을 확인한 뒤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점수 하락의 주된 원인은 노내 제1문의(1) 포섭 부분입니다. 법리는 잘 제시했으나, 저는 각 사업장을 문제에서의 회사가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어 각기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여 대체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포섭하였습니다. 때문에 포섭 부분에서 큰 감점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노내 제2문, 회식 중 사고의 산재 인정 여부에서도 법조문과 업무수행성-업무기인성 관련 판례 정도만 소개하고 회식 중 사고 관련 판례를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왔습니다.

### 2) 인사노무관리론 - 60.23

제1문을 봤을 때,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넓은 범위의 키워드로 50점 분량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라는 생각에 참 애매했습니다. 그래도 잘 정리한 뒤 제2문으로 넘어갔을 때, 큰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올해 제2문은 경영성과분배 중 Profit sharing을 묻는 문제였는데, 아시다시피 PS는 교수님 교과서에서도 분량이 매우 적을뿐더러 모의고사 때에도 단독 주제로는 제대로 써 본 적이 없던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당연히 Gain sharing이라고 생각하고 2페이지 넘게 작성하다가, 중간에 제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거의 10초 가량 온갖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생업 문제도 있고 해서 진짜 죽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다가, 옆에서 치열하게 쓰고 있는 다른 수험생들을 보니 제가 2년이라는 시간동안 투자했던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죽더라도 다 쓰고 죽자라는 생각을 하고 미친 사람처럼 썼습니다. 안 그래도 글씨가 별로인데 아마 해독이나 간신히 될 정도로 갈겨 써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3문까지 작성한 뒤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때 포기하거나 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재작성한 탓에, 평균점수 이상의 높은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점 교수님들도 제 답안지를 보고 아마 중간에 틀렸지만 전력으로 만회하려는 모습에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주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3) 행정쟁송법 - 59.99

올해 행정쟁송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기출되어, 다들 평균 이상의 서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60점은 당연히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거의 차이가 없지만 50점대를 맞은 걸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제2문에서 이의신청 관련 문제를 풍부하게 적시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3문 부작위의 위법성 관련해서도 남들 쓰는 정도밖에 쓰지 못했던 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시험일수록 기본을 잘 서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1문의 경우처럼 흔히 말하는 소송요건과 관련된 부분은, 암기한 그대로 현출하고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4) 경영조직론 - 63.11

올해 가장 슈퍼하드캐리를 한 과목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시험지를 받고서는 좀 당황했습니다. 흔히 '행시 스타일'로 말하는 분설형 문제로 전체 문제가 잘게 쪼개져 있었기 때문이었고, 첫 문제에서 buy 전략과 make 전략을 다른 용어로 사용해 한 번에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시험장의 다른 수험생들도 타 과목과는 달리 바로 작성해내지 못하고 고개를 가웃하는 것을 보며, 곧바로 관련 내용을 집어낸 뒤 차근차근 작성하였습니다.

분설형 문제의 특성상 적시하라는 내용만을 쓰더라도 분량이 꽤 타이트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만을 욕심 부리지 않고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려고 노력했고 덕분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2. 공부방법론

---

### (1) 일반론

저는 지방사람은 아니지만 통학에 걸리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되어 인터넷강의로만 전 수험기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저번 주 합격자 축하연에서 만난 타 합격자들과 이 얘기를 했을 때 다들 물어본 것이 이 말이었습니다.

“학원 안 가고 하면 집중이 되나요?” 네.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퇴직 이후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30대 가장의 입장에서는 단청 피울 만한 여유를 부릴 시간도 멘탈도 없습니다. 게다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 취업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는 것을 경험하자, 올해가 아니라면 정말 앞으로 인생이 작살나겠다는 위기감에 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심한 짝눈(좌 1.5/우 0.1)에 난시까지 심해 책을 오래 볼 경우 초점도 흐려지고 두통이 매우 심해지는 패널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경으로 어느 정도 교정은 가능하지만, 양쪽 굴절률이 워낙 심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눈의 피로감이 매우 가중되는 케이스입니다.

때문에 저는 교과서 회독수를 많이 늘리기보다는, 나름의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제

스스로의 정리된 편집본을 타이핑하여 만드는 등으로, 쓰면서 학습하였습니다.

[근기19] 소정근로시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6다2451>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나, ①그 정함이 단체협약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②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이를 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근기20] 휴일근로의 1주간 연장근로 포함 여부

1. 종전의 해석

(1) 행정해석

휴일근로는 1주간의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 근기법상 1주와 1주일을 구분하여 1주일의 총 근로시간은 68시간으로 보았다.

(2) 종전 판례

휴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중복 가산하도록 했으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2. 2018. 3. 20.자 근기법 개정

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1주간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신설하여, 1주에 총 52시간까지만 허용하게 되었다. 또한 법 제56조 제2항을 개정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만을 가산하도록 입법하였다.

3. 근기법 개정 후 전원합의체 판결 [2011다112391]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가산임금을 각각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근기21] 포괄임금약정 [2008다57852]

1. 임금 계산의 원칙

“근기법 제17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2008다6052]”

2. 임금 계산의 예외: 포괄임금약정

“포괄임금약정이란 ①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거나, ②기본급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을 말한다.”

3. 포괄임금약정의 성립여부

(1) 성립여부의 판단기준

“근로시간·형태와 당해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상의 실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①법정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나, ②단체협약 등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었거나 ③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산정을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임금약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목적적 합의에 따른 성립여부 [2016도1060]

“①근로형태의 특수성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초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②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급여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아니

III. 2차원 모델

1. OSU model

	L	구조주의	H
H	구조주의 L	구조주의 H	
L	배려 H	배려 L	
	L	구조주의 L	구조주의 H
	L	배려 L	배려 H

- 이론의 개요 (Stogdill, Fleishman) 통사론
- 측정 설문지: 리더행동기술 설문(LBDQ)
- 리더십의 요인
  - 구조 주도(initiating structure)
  - 배려(consideration)
- 리더십의 유형
  - 연구 결과 구조주의-배려 가능
  - 공헌 교육훈련을 통한 리더십 개발가능성 제시

2. Blake&Mouton, <관리적자모델(man.grid)>

	L	관심	H
H	관심 L	관심 H	
L	관심 L	관심 H	
	L	관심	H

- 이론의 개요 리더십 관심에 따른 8가지 모델
- 리더의 관심
  - 생산에 대한 관심(concern 4 prod.)
  - 사람에 대한 관심(concern 4 people)
- 리더십 유형
  - 무관심형(impooverished style) (1,1)
  - 컨트리클럽형(country club style) (1,9)
  - 과업중심형(task style) (9,1)
  - 중충형(middle-of-the-road) (5,5)
  - 팀형(이성형, team leader) (9,9)
- 공헌 교육훈련을 통한 리더십 개발가능성 제시
- 비판 이론에 있어 팀형이 가장 효과적인가? 실증연구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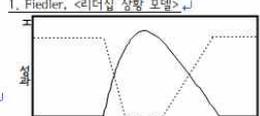
3. Misumi, <PM 이론>

	L	성취지향	H
H	PM	PM	
L	pm	Pm	

- 이론의 개요 리더십학이 발전의 3대분야 모델
- 리더십 모형
  - 성과지향(performance orientation)
  - 관계지향(maintenance orientation)
- 연구 결과 PM > pm > Pm > pM
- 시사점 집단지향과 성과지향의 관련성

<> 리더십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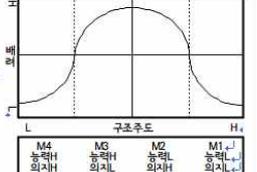
1. Fiedler, <리더십 상황 모델>



- 이론의 개요 최초의 상황이론
- 측정 설문지: LPC(least-preferred cha.)
- 리더십 유형
  - 관계지향적 리더십(relationship-oriented)
  - 과업지향적 리더십(task-oriented)
- 상황변수: 상황 호의성(favorableness) 연구
  - 리더-구성원 간 관계(L-M relations)
  - 과업구조(task structure) 형태

- 목표의 명료성
- 목표-경로의 다양성
- 과업 결과의 검증가능성
- 결과의 존재 정도의 구체성
- 직위권력(position power)
- 공헌 교육훈련, 리더 개발능력 강조
- 한계 이론적 타당성, 수당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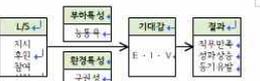
2. Hersey&Blanchard, <상황적 리더십 이론>



- 이론의 개요 OSU 발전후, 수당도 도입
- 이론의 배경: Argryris, <성숙-미성숙 이론>
- 리더십 유형 선택방식
  - 지시형(telling) 2) 지원형(selling)
  - 참여(participating) 4) 위임(delegating)
- 상황변수: 구성원의 성숙도(maturity) 중요
- 상황별 리더십 유형
  - M1: 지시형 2) M2: 지원형
  - M3: 참여형 4) M4: 위임형
- 공헌 교육훈련, 리더 개발능력 강조
- 한계 이론적 타당성, 수당도 도입

3. House, <경로-목표 이론(path-goal theory)>

- 이론의 개요 목표달성에 따른 동기부여의 결합
- 이론의 배경: Vroom, <기대이론>



- 리더십 유형
  - 지시적 리더십(directive)
  - 후원적 리더십(supportive)
  - 참여적 리더십(participate)
  - 성취지향적 리더십(achievement-oriented)
- 상황변수: 상황구분
  - 부하의 특성
    - 직무능력(ability)
    - 통제의 위치(locus of control)
    - 부하의 욕구(needs&motives)
  - 과업 환경적 특성
    - 과업의 구조화 정도(structured)
    - 권한 체계(authority system)
    - 집단의 성숙도(work group)
- 상황별 리더십 유형 선택을 위한 방법 선택
- 공헌 교육훈련 리더십 개발
- 한계: 기대이론의 논리적 한계, 상황변수의 상호작용가능성

4. Vroom&Yetton&Jago, <리더십 규범이론>

- 이론의 개요 리더십-경험설의 모델
- 이론의 배경: 참가적 의사결정(PDM)
- 리더십 유형
  - 순수독단형(Autocratic I)
  - 참고독단형(Autocratic II)
  - 위임형(Group II)
  - 집단참여형(Consultative III)
  - 위임형(Group I)
- 상황변수: 상황구분
  - 의사결정의 질(quality of decisions)
  - 문제와 관련된 리더의 정보수준
  - 문제의 구조화 정도
- 의사결정의 수용도(acceptance)

99% 이상을 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인강을 들은 뒤 나머지 시간에 위와 같이 나름의 프린트를 만들며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만들 때에는 시간도 정말 오래 걸리고 어찌 보면 꽤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가장 빛을 발했다고 생각한 때는 단연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때(약 7월 이후)였습니다. 이때쯤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논어 읽는 선비의 심정으로 채깡 마르고 닳도록 기본서 책을 읽게 됩니다. 물론 밑줄도 치고 메모해서 단권화하는 등으로 회독을 용이하게 합니다.

다만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된 프린트만 봐도 굳이 교과서를 찾아보지 않아도 전 과목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마지막 2달 동안은 거의 제가 만든 프린트만 보면서 모의고사를 쓰며 ‘손으로 외우는’ 방식을 고수할 수 있었습니다.

워낙 같은 내용의 프린트를 많이 보다 보니, 몇 페이지 어디쯤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까지도 기억할 수 있을 정도였고 이는 2차 시험장에서 목차를 짧게 잡고도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각 과목별 학습방식입니다.

## (2) 노동법

판례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일단 일반론을 못 쓰면 이 과목은 절대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년차 때와 유예 때, 판례를 외우는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1년차 때에는 흔히 말하는 ‘두문자’를 기초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외웠으나, 2년차 때에는 두문자 외에 판례평석 등을 참고하며 보다 많은 분량을 암기가 아닌 이해에 의해 현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뿐 아니라 사안의 적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를 정확히 제시했더라도, 노무사는 그 판례를 통해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평가 또한 어떤 과정과 방식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가에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판례 적용이 필요합니다.

## (3) 인사노무관리론

올해 제1문과 같이 현안 이슈와 관련된 문제라도, 그 내용을 ‘확개평보유방’이라는 HRM적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HR의 유지관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동기부여를 위한 비금전적 보상으로서 보상관리의 측면에서도 서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각을 다양화하되 정확한 이론에 기초하여 서술하고, 일반론을 먼저 제시한 뒤 이를

확대시키며 서술하고 적절한 사례를 붙이는 등의 글쓰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지도찾기’ 즉 해당 문제가 HRM의 어느 관리부문에 속하는지를 서론에서 제시하고, 이를 본문 초반에 세세하게 푼 뒤 관련된 사례를 간단하게 짚고, 장/단점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기본 목차라고 생각합니다.

#### (4) 행정쟁송법

명확한 판례가 별로 없습니다. 행정법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동법이 리딩판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과 달리 행정쟁송법의 경우 판례를 비판하는 학계의 논의도 매우 많습니다. 행정법학자 100명이면 100개의 의견이 있다는데, 그 이유를 공부할수록 더 알게 됩니다.

때문에 저는 같은 내용이라도 여러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행정행위와 처분(verwaltungsakt)의 관계와 관련되어 쟁점이 ① 실체법적 개념설과 ② 쟁송법적 개념설로 나뉘는데 판례가 이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저는 실체법적 개념설을 기준으로 일단 검토한 뒤, ‘쟁송법적 개념설에 의하면 이리이러하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느낌의 서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 때문에 출제교수님들도 학설의 대립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출제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5) 경영조직론

암기, 지도찾기, 세분화라는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쓸려면 뭐라도 알아야 하니 암기를 해야 하고, 그 암기 부분이 전체 경영조직론의 어느 부분(개인/집단/조직)에 있는지를 알고 관련 개념도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 같은 개념이라도 영어 병기나 학자/학파 언급 등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답안을 작성할 때 물어본 거 위주로 언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다보니 어디서 어디까지 써야 할지도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계속되는 답안 작성 훈련으로 교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묻지 않은 내용은 채점하지도 않습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출제자가 뭘 묻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제를 잘 읽어, 제 1년차 때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3. 30대 전업 수험생을 위한 조언

---

이 부분은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작성합니다.

저는 27살부터 만 3년 2개월간 언론사 기자로 재직하다가, 2018년도 2월부터 84일간의 파업을 거치며 노동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노무사 수험의 길로 접어들

게 된 케이스입니다.

2018년 11월 1일자로 퇴사하여 그 때부터 전업으로 공부하였고, 1년차 불합격 이후 3개월 정도 물류일을 하면서 생업과 공부를 병행하다가 올 봄부터 다시 전업으로 전환하여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전직의 개념으로 퇴사 후 전업으로 공부하려는 생각이 있으신 30대 분들에게 몇 가지 현실적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 **(1) 머리가 많이 굳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십시오.**

솔직히 저는 공부한 양에 비해서는 이해력은 빠른 편이라고 32년을 살면서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도 적당히 놀고 밴드에서 기타도 치면서도 한국외대에 진학했고, 첫 취직도 졸업 이전에 남들이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나름 괜찮은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제가 1년 안에 이 수험생활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지금 와서 보니 정말 큰 오산이었습니다.

과거의 학벌이나 성과가 현재의 이해력과 완전히 별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운동선수에게 '에이징 커브'가 있듯 공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집중력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시험 직전 2개월 정도 외에는 하루 8시간 공부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해력도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지금 생각하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암기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현실적입니다. 공인노무사가 아무리 흔히 말하는 8대 전문직 중 그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 시험 또한 가지고만 있으면 마통 바로 뚫어주는 훌륭한 전문직입니다. 이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수능이나 대입 때의 경쟁자와도 질적으로 다릅니다. 실제로 올해도 젊은 대학생 수험생들 중 동차생들도 꽤 많으니, 우리는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2) 무리하지 마십시오.**

수능 볼 때 '4당5락'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건 창창한 10대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애석하게도 이제는 무거워진 눈꺼풀을 이기기도 매우 힘이 들고,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파 정형외과 단골이 됩니다.

저는 하루에 7시간씩은 꼭 잤던 것 같습니다. 어지간하면 책상 앞에 붙어 있었으나, 정말 체력적으로 부친다고 느낄 때에는 과감히 반나절 정도는 쉬었습니다. 대신 그 쉬는 시간 동안 게임을 하거나 육체적인 일을 하는 등 이후의 수험에 영향을 줄 만한 행동은 하지 않고, 그냥 정말 누워서 쉬었습니다.

암기량이 워낙 많은 시험이라서, 저는 하루에 많이 하는 것보다 일정한 시간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하루 12시간씩 월 22일(주 5일제)을 하는 것보다, 하루 8시간씩 월 28일(2주에 1번 하루 쉬기) 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3) 경제적인 부분을 충분히 준비하십시오.

저는 1년차 때에는 와이프도 취준생이었기에 둘 다 땀 한 톨 못 벌었습니다. 애초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포함해 모아놓은 돈이 4천만 원 가량 있었는데, 대략 계산하니 월 150씩 잡았을 때 2년을 버틸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2년을 연한으로 잡고 공부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들어갈 일은 정말 꾸준히 생기고, 예측하지 못하게 튀어나옵니다. 공부에는 체력만큼이나 재력도 중요합니다. 돈 떨어져서 받는 스트레스는 당락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라서 정말 크게 작용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총알 단단히 챙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 (4) 인간관계는 최소화하되 유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직은 사실상 영업직이며 결국 시험의 당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먹거리 발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30대에 진입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겠죠.

저처럼 직장생활을 하던 분들의 경우, 기존의 인적 네트워크는 어떤 직종에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때문에 퇴사 후 전업 수험생의 경우, 대학생들처럼 ‘1년 잠수’ 타듯 모든 연락을 끊고 사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큰 무기를 일부러 내팽개치는 것과도 같은 자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시험 3개월 남은 정도가 아니라면 한달에 두어 번은 일부러 친구들도 만나고 술 한 잔 하는 등으로 살았습니다. 나름 스트레스 푸는 데도 도움이 되고, 면벽만 하다 보면 생기는 사회성 결여의 문제도 꽤 해결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에서, 저는 서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강의를 통한 학습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강하였던 ‘박문각 온라인 첨삭반’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 4. 박문각 온라인 첨삭반

---

### (1) 개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 실감이 닫히면서, 온라인첨삭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방에 살고 서울에 올라올 여력이 없는 분들께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들었던 온라인 첨삭반은 본인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오히려 실강보다도 우위에 설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2) 박문각 온라인 첨삭반의 장점

캠스캐너 등의 어플로 작성한 답안을 찍어 전송하면, 그 다음주 중에 첨삭본이 전달됩니다. 첨삭의 퀄리티도 좋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이나 작성 스킬에 관한 부분 모두에 있어 실강에서의 첨삭과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저는 타 학원 수업도 올해 계속 들으며 최고답안 등 첨삭된 버전을 접해 왔지만 아무래도 첨삭의 퀄리티라는 점에서도 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형학원 소위 1타강사의 첨삭요원들은 사실 지금 제 신분과 같은 작년 또는 재작년 합격생들로, 첨삭의 전문성이나 깊이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박문각 온라인 첨삭의 경우 행쟁과 경조는 교수님들께서 직접 담당하시고, 노동법/인사를 담당하는 심준형 노무사님도 오랜 채점 경험을 가지고 정말 자세하고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 주십니다. 이 점에서 채점의 퀄리티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3) 한계점

하지만 올해 대형 강의들에서도 드러났듯, ‘스스로 통제되지 않은 인터넷 첨삭과 자가 진단’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학원이 인강으로 진행한 올해 2기에서, 대형 1타 강사들의 모범답안은 솔직히 거의 불가능한 퀄리티였습니다. 분량도 20쪽씩 되고, 내용은 물론 글씨까지도 마치 타이핑 한 것처럼 정갈하게 쓴 답안들이 모범답안에 매일 올라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안 믿습니다. 내용이야 본인이 공부한 대로 썼더라도, 정해진 시간 내에 그렇게 타이프하게 많은 내용을 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실제로 3기가 되고 실강이 열리자, 오히려 모범답안의 퀄리티가 내려가고 글씨도 개판이 되는 걸 보고 저는 제가 생각한 게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때문에 자칫 자기가 시간적 리미트를 두지 않고 쓴 답안이 자기 진짜 실력이라고 믿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자제력이 없다면 그냥 한두 번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최소한의 통제력이 필요합니다.

## 5. 기타 유념하실 사항

---

### (1) 선택과목 문제

학부 등에서 전공하신 분들의 경우(예: 법대/경영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나, 저처럼 무전공/타전공의 경우에는 선택과목 문제가 항상 이슈가 됩니다. 경조는 양이 너무 많고, 노경은 숫자 세서 어렵고, 민소는 법대생들이 꼭 잡고 있으니깐요.

일단 민소는 빠겠습니다. 올해 민소 합격률도 상당히 낮고, 이제는 거의 안 계시지만 사시 출신 수험생들이 워낙 많았다보니 좋은 점수 맞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합격자 모임이나 최근 면접 스터디등을 진행하며 민소 선택한 분들은 전부 다 법대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조와 노경 중에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조가 양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못 할 만큼 많은 양은 아닙니다. 다만 당연히 1년차에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많이 어려우니, 유예 정도는 생각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경조가 점수 잘 나옵니다. 워낙 범위가 넓어서... 이 점은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 (2) 글씨 및 필기구 문제

저도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워낙 모의고사 등으로 쓰는 양이 방대하고, 필속을 받쳐줄 수 있을 만큼 부드러우면서도 잘 써지는 필기구를 찾는 건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글씨체를 떠나 판독이 가능한 글씨를 쓰는 것이 당연히 점수에도 좋겠죠.

전 개인적으로 법과목의 경우 정말 알아만 볼 수 있으면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쓸 내용이 판례 등으로 다 정해져 있어서, 그냥 읽다보면 대충 이런 내용을 쓴 거겠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다만 경영과목은 글씨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표 등까지 그리면서 시각적인 부분이 극대화되는 만큼, 적어도 판독 가능한 크기로 일률성을 유지하며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글씨는 별로지만 필속이 좋은 편이라, 올해도 답안지 짹짹 채워서 썼음에도 문제 잘못 썼던 인사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엄청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사만 18페이지를 썼고, 행정/경조는 각 16페이지 짹짹 채워서, 노1은 13페이지, 노2는 12페이지 썼습니다. 이 정도 쓰면 분량 때문에 문제 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험 1달 안 남았을 때부터는 손목 관리 꼭 하셔야 합니다. 모 야구감독의 구시대적 발언과 달리, 사람의 관절이란 쓰면 쓸수록 약해집니다. 올해 동이 카페에서 나왔던 케이스처럼, 시험 당일 손목이 나가서 시험 포기하는 경우 생기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 (3) 생활패턴 문제

저는 야행성 인간입니다. 때문에 아래와 같은 패턴으로 마지막 1달을 제외한 나머지 수험기간을 모두 보냈습니다.

9~10시 기상 / 30분 가량 웹서핑(기레기 출신이라 뉴스 많이 봅니다) / 오전 공부 /

12~13시 점심 / 오후 공부 (중간에 쉬는시간 합치면 1시간 이상) / 17시 헬스장 가는 등 운동 후 저녁식사 / 20시 정도부터 저녁공부 / 23시 끝내고 놀다가 취침

저렇게 해도 실공 시간 따지면 8시간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저는 눈 때문에 예라도 일부러 더 쉬어준 것도 있긴 하지만... 카페에 보면 하루 16시간씩 하는 분들도 있던데, 존경합니다.

마지막 1개월은 시험을 대비해 7~8시 정도에 기상하여 순공 시간이 1~2시간 더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패턴은 거의 똑같이 가져갔습니다.

보통 2주에 하루는 공부 아예 안 하고 놀았고, 나머지 13일은 저 패턴 유지했습니다. 노는 날은 술 먹고 놀러가기도 했는데, 광합성 안 하면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일부러 했습니다. 대신 시험 직전 2달 정도는 집에서 맥주 한 캔도 안 땀습니다.

## 6. outro

---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은,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1년차 때 커트가 59점 초반이었기에, 솔직히 많이 아까웠습니다. 애초에 수험시장에 진입할 때는 당연히 1년 만에 합격이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으면서도, 의외로 모의고사가 나쁘지 않아서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누적된 공부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일이 그렇듯 시행착오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채점기준의 명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우리 서술형 시험의 경우 그런 경험의 중요성이 더욱 상승합니다. 작년에 이렇게 해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 이를 보완하고, 높은 점수가 나온 부분은 더 유지/개선하는 게 전략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정말 많이 지칩니다. 우울감도 많이 올라오고, 옆에서 말은 안 하지만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는 와이프와 양가 부모님들 보면 참 막막합니다. 시험결과 발표날 저는 그래도 좀 잤는데, 와이프님은 아예 한 숨도 못 자고 뒤척이더라고요.

때문에 자기가 왜 이 시험을 진입하였는지 그 초심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기암시와 긍정적인 '정신승리'도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육체적·정신적인 컨디션을 유지해서 항상성 있게 공부한다면, 점수가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2년 만에 수험생활을 청산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깐요.

이 글을 보시는 다른 수험생분들께도 실력에 걸맞은 운이 작용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출입니다.